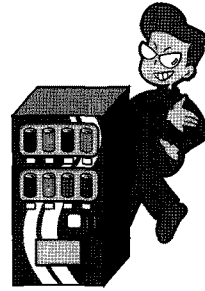


천태만사, 자판기 세상 속으로



>>> 국내

자판기뒤에 8천여 만원 놓고 사라진 기부천사



"동사무소 뒤편에 세탁소가 있는데, 거기 음료수 자판기 뒤편에 가면 '종이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다. 이 사람은 매년 전화를 걸어 돈이 놓여진 장소만을 알려주고 절대 누구인지 노출을 안한다. 2009년도 이 사람은 어김없이 기부를 실천해 추운 세목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2009년은 특히 그동안 기부액과 맞먹는 8천26만여 원을 기부했다. 특징적인 현상은 돈을 놓는 장소로 자판기 뒤를 선택했다는 것. 자판기 산업계도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라는 무언의 시위(?) 아닌가 한다. 그가 남긴 편지 한장이 가슴을 잔잔하게 감동시킨다. '대한민국 모든 어머님들이 그러셨듯이/ 저희 어머님께서도 안 쓰시고 아끼시며 모으신 돈이랍니다./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졌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편지 말미에는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추신이 붙어 있다. 가장 가치있는 삶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배품을 아끼지 않는 삶이 아닐까? '세상의 부는 나눠 쓰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얼굴없는 기부천사

출처: MBC뉴스

◀ANC▶

10년 전부터 매년 이맘때면 전북 전주의 한 주민센터에 말 없이 돈을 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도 8000만 원의 성금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얼굴 없는 기부천사죠. 이상연 기자입니다.

◀VCR▶

전주 노송동의 주민센터 직원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남자의 전화에 얼굴없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INT▶허인회/주민센터 직원

"차분한 목소리로 40대 초반 남자가 자판기 뒤에 가 보라고 해서 바로..."

종이상자 안에는 만원권과 오만원권 지폐몽치와 돼지저금통을 합해 모두 8천26만여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10년 전 50여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놓고 간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기탁한 것입니다.

◀INT▶한일수/노송동 주민센터장

"제가 기쁜 것 이상으로 우리 불우한 이웃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얼굴없는 천사는 주변의 관심과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주민센터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이 곳에 상자를 두고 갔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머니가 안쓰시고 아끼시며 모으신 돈이

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이 얼굴없는 천사의 선행을 기려 노송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얼굴없는 천사의 길'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티켓발매기를 이용한 헤어 컷 전문점 등장



요즘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유심히 보면 새로운 유행 트렌드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지하철 역에 등장한 '헤어 컷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이다.

이동 중에 간단하게 머리를 깎을 수 있다는 컨셉으로 요

즘 개설되는 곳이 늘고 있다.

어떤 곳은 기존 헤어 컷 전문점과 차별화를 위해 물 없이 머리를 깎을 수 있게 하는 방법까지 도입했다고 한다.(*우주에서 우주인들이 머리를 깎는 방법 이용)

또 이색적인 것은 인건비 절감과 고객이 원하는 헤어 스타일을 선택을 위해 티켓발매기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손님들이 기계를 통해 결제를 하니 점원들은 머리를 깎는데만 집중할 수 있다. 빨리 선택하고 빨리 깎고, 한국인의 급한 성격에도 딱 부합하는 시스템인 것 같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무인화를 통해 자판기를 도입하는 뉴트렌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종이 자판기를 도입해 사업 차별화를 진행하는 좋은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마트에 '디지털콘텐츠 자판기' 깔린다

오프라인 대형 할인매장 이마트에 '디지털 콘텐츠 자판기'가 깔린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ETRI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콘텐츠 자동판매기 기술을 적용한 콘

츠 자판기가 상용화 될 전망이다.

아직 규모나 구체적 사업 로드맵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년 2월 경에는 이마트 등에서 콘텐츠 자동판매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터치다운'이라고 불리는 이 자판기는 ETRI가 개발한 콘텐츠자판기 기술에 모바일 솔루션 업체인 모비루스가 디지털저작권관리(DRM)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콘텐츠 자동판매 기기다.

모비루스 따르면 이 디지털 콘텐츠 자판기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 환승역과 일부 대학가 등에서 이미 1차 필드테스트를 마쳤다. 1월 중순까지 2차 필드테스트를 진행하고 곧바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콘텐츠 수급은 지난 2월 ETRI와 '기술이전 마케팅' MOU를 체결한 신세계아이앤씨가 담당하고 기기 제조는 모비루스가 맡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로 통칭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오픈마켓이 이슈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콘텐츠 자판기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콘텐츠 자판기가 상용화 될 경우 소비자들은 이동 중 무선데이터 통신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손쉽게 디지털 콘텐츠를 자신의 휴대폰이나 노트북, PMP 단말기에 다운로드 받아 즐길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와 넷북, MP4P 등 엔터테인먼트 기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동녹차연구소, 녹차추출제품 시판위해 서화전자와 제휴

하동녹차연구소는 추출액인 '하동녹차 귀하다(河茶)'란 제품으로 최신 설비를 갖춘 녹차연구소 가공공장 시험생산동에서 생산해 자판기 관련 회사인 서화전자와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판매한다.

녹차 추출제품인 '귀하다'는 하동녹차가 왕의 녹차로 명품으로 귀하다는 뜻으로, 하다(河茶)는 하동의 한자 하(河)와 차다(茶)를 조합해 제품명으로 명명했다.

녹차연구소는 시험생산동에 설치된 '추출여과 및 혼합 농축제조설비'를 이용해 생산한다.

첫 발주량은 3톤(생엽기준 1500kg)으로 향후 시장이 확대될 경우 2010년에는 월 9톤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 10억여원 이상의 매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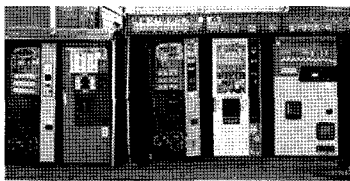
녹차연구소는 커피자판기에 액상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상전환기를 개발 생산하는 서화전자와 제휴해 국내에 유통망이 전무한 하동녹차의 대중화를 위해 하동녹차연구소에서 생산하고 서화전자에서 판매해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될 신제품 개발에 몰두한다는 방침이다.

녹차연구소는 이번 출하식을 시점으로 생산 및 판매될 하동녹차추출액 '하동녹차 귀하다(河茶)'란 제품은 기존 녹차 추출·농축액을 음용하던 소비자에게 좀 더 녹차에 가까운 고품질 녹차음료를 음용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 침체된 녹차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커피향 가득... 자판기와 함께 추억을 쌓아요

강릉 안목해변 10여년 전부터 해변 곳곳에 자판기 설치

■ 안목해변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정동진 방향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10여분 가면 안

목해변에 닿는다. 백사장 길이가 약 500m 되는 해변이다. 이곳 백사장 뒤 해안도로는 10여년 전부터 '길카페'로 통했다. 길거리 카페란 이야기다. 왜 '길거리 카페'일까. 커피자판기가 많아서다. 둘러보면 식당 옆, 슈퍼마켓 앞, 공중화장실 옆 등 곳곳에 커피자판기다. 몇 대나 될까. 이 일대에서 8년째 커피자판기 4대를 운영 중인

박창성씨는 "불과 약 500m 길이의 도로를 따라 30~40대의 커피자판기가 있다. 5~6년 전만 해도 얼추 80대가 넘었다"고 했다.

자판기가 많아진 이유는 이렇다. '전국구' 관광지인 경포해수욕장은 일찌감치 유명한 카페가 많았다. 전망도 좋아 인기였다. 자판기사업자들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 안목해변에 자판기를 설치했다. 안목은 강릉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라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주머니 가벼운 젊은층 사이에서 '대박'이 났다.

이들은 동전 몇 개 넣고 커피를 뽑아 백사장 벤치나 차 안에서 마시며 데이트를 즐겼다. 물론 바닷가니 전망도 훌륭했다. 로맨틱한 데이트장소로 이름이 나자 강릉 시내 직장인들도 점심식사 후 커피 한잔 마시러 안목에 들렀다. 아주머니들도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이곳에서 오후시간을 즐겼다. 이렇게 안목의 커피자판기가 강릉 명물이 된 것이다.

요즘 안목 바닷가는 카페와 자판기가 어우러져 '길카페'가 아닌 '커피거리'로 변신했다. '네스카페' '모래위에 쓰는 편지' '엘빈' 등 2002년부터 생겨난 커피가게가 어느덧 10여 곳이나 들어섰다. 쌀쌀한 날씨에도 커피가게를 찾는 이들이 제법 많다. 초겨울 고즈넉한 바다 풍경이 그리워 온 사람들도 있고 옛 7번 국도를 따라 호젓한 드라이브를 즐기다 들른 이들도 있다. 안목 바닷가 한편에선 항구 개발공사가 한창이라 조금 부산스러운 것이 단점. 하지만 이곳엔 예쁜 등대가 있는 방파제가 있고 갈매기들도 제법 많이 날아들어 커피와 호젓한 산책을 즐기기에 모자람 없는 운치가 있다.

수가 줄긴 했어도 지금도 자판기 앞에 차를 멈추고 커피를 뽑는 이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자신만의 자판기'에서만 커피를 뽑아 마시는 사람들도 많다. 즉, 자판기마다 단골이 있는 셈이다. 자판기도 전과 달리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헤이즐넛 등 종류도 많아졌다. 얼음이 들어간 냉커피도 나온다. "유

명한 만큼 이곳 자판기 관리가 전국에서 가장 잘 될 것"이라고 한 자판기 운영자가 설명했다.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손님들이 먼저 야단법석이란단다.

사업주의 회사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또 지역의 광고를 흡수하여 매출수익과 아울러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여주휴게소에 '여주쌀 즉석 도정 자판기'를 설치



경기도 여주군은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여주휴게소에 '여주쌀 즉석 도정 자판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쌀 자판기에서는 2kg 여주쌀 1포를 1분 정도 쥘어 7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5분도, 7분도, 9분도, 11분도(백미)로 선택해 쥘 수 있는데다 즉석에서 소포장으로 구매할 수 있어 휴게소 이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여주지역 대표 영농법인인 '여주쌀 연구회'가 쌀 자판기를 운영하고 여주휴게소가 기계 관리를 맡고 있다.

여주군 관계자는 "하루 평균 40포대가량이 판매되고 있는데 휴대가 간편하고 카드결제도 할 수 있어 고속버스 승객과 자동차 운전자가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신개념 "음주측정자판기" 개발

올바른 음주문화의 정착을 기대하면서 에이원시스템에서 독특하고 매력넘치는 음주측정자판기를 개발, 국내에 시판하게 되었다.

기존의 (반도체, 가스)식의 측정기와는 달리 경찰이 사용하는 측정기와 같은 전기화학식 방법으로 정확도 면에서 오차 범위를 최소화 했으며, 심플하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현재 미국,일본 및 호주,독일,프랑스 등 유럽권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으로 인기리에 수출되고 있는 검증된 제품이다.

이 측정기는 음주수치 측정은 기본이고, 기기에 디지털 광고판을 부착해 동영상을 통한 광고를 입력하면

침팬지용 자판기, 서울동물원에 등장

침팬지가 나무 동전을 자동판매기에 넣고 바나나를 뽑아 먹는 모습을 서울동물원에서 볼 수 있다.

서울동물원은 전신인 창경원 동물원 100 주년을 맞아, 고릴라·침팬지 등이 있는 유인원관을 새로운 형태의 야외 생태 학습장으로 꾸며, 어린이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유인원 정글'은 국내 최대 규모인 4877㎡로, 침팬지와 망토원숭이 등 11 종 77 마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알락꼬리원숭이마을에서는 관람객이 풀어놓은 원숭이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다.

또 침팬지에게는 높이 8m의 초대형 '정글짐 타워'와 침팬지용 자판기 등 놀이 기구를 갖춰 줬다. 이 자판기는 훈련을 받은 침팬지가 특수 제작한 나무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면 먹고 싶은 먹이를 꺼내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관람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디어가 기발하다. 이제 동물원도 새로운 창의력을 통한 혁신이 없으면 생존하기 힘든 시대인 것 같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과거 일본의 한 동물원에서 도입을 했던 방식을 벤치 마킹한것 같다.

어쨌든 이 시도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참, 이 자판기는 침팬지가 먹이를 먹기 싫으면 이용장면을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수다' 미녀들이 꿈꾸는 특이한 자판기는 무엇일까?

얼마전 KBS 2TV '미녀들의 수다'(미수다)를 보다보



니 미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판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왔다.

영국미녀 에바는 “영국은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비옷, 우산, 선크림 등을 살 수 있는 날씨자판기가 있다”고 전했다. 에바는 “예전에는 도둑이 많아서 자판기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나라가 좋아졌나보다”며 “자판기가 늘어났다”고 했다.

일본에는 살아있는 곤충을 뽑을 수 있는 곤충자판기가 있으며 손을 넣으면 네일아트가 되는 자판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랑스에는 꽃다발 자판기가 있다. 하지만 중국에는 대도시 일부에만 자판기가 존재한다.

한편 미녀들은 향수 자판기, 화장 해주는 자판기, 힘들 때 위로해주는 포옹자판기 등을 꿈꿨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특징적인 점은 여성들인지라

네일아트, 향수, 화장 등 미용 관련한 아이템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중 상상력이 기발한 것은 에바가 얘기한 '화장을 해주는 자판기'이다. 아마 이런 자판기가 실제 나온다면 큰 인기를 끌것 같다. 물론 '직접하는 것 만큼의 화장발이 나올 수 있을까' 여부가 관건이지만, 평상시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감안한다면 간편하게 화장을 해주는 자판기는 인기를 끌 여지가 크다.

여성들은 그렇다하고 남성들이 제일 원하는 자판기를 뭘까? 미수다가 얼마전 '루저'발언으로 무수한 못매를 맞은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 '남자 키를 크게하는 자판기가 아닐까 한다. 이런 꿈의 자판기가 나온다면 정말 세상 남자들이 좋아 할 것이다.

커피자판기 수리원 가장해 대학 4곳 절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커피자판기 수리원을 가장해 대학들을 돌며 고가 물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신모(39)씨를 구속하고 신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서모(39)씨 등 3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연구실의 문을 따고 들어가 휴대용 컴퓨터 1대를 훔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대와 숭실대, 중앙대, 한양대 등 4개 대학에서 26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살고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시작한 신씨는 공구 가방을 든 채 자판기 수리원인 것처럼 학교 경비원을 속여 자유롭게 대학 건물을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경찰에서 "대학은 유동인구가 많아 감시가 소홀할뿐더러 건물 안에 폐쇄회로(CC)TV도 거의 설치돼 있지 않아 범행이 비교적 쉬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해외

'에스프레소 책'이라는 독특한 자판기가 등장

영국 런던의 차링크로스 거리에는 '에스프레소 책'이라는 독특한 자판기가 등장했다. 자판기에서 원하는 책을 고르면 주크박스처럼 현장에서 책이 인쇄된다. 주문에서 제본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5분. 시내 서점에 가느라 시간과 차비를 낭비할 이유도, 인터넷 서점에 주문하고 며칠씩 기다릴 필요도 없다. 주목할 것은 이 기계가 첨단 디지털 기술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웬만한 대형서점 뺀치는 50만권의 책이 디지털 정보로 집

적되어 있다. 고객이 원하면 가장 전통적인 '인쇄물'의 형태로 탈바꿈한다.

미국, 자판기서 콜라 잇단 퇴출

음료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의 대표주자인 콜라가 사라지고 있다. 길거리에 위치한 자판기는 물론 지하철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도 콜라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다. 자판기에서 콜라가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콜라의 인기가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1년 6300억원이던 콜라시장이 올해 4190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급감했다. 웰빙 열풍으로 콜라 소비가 줄어든 반면 차음료와 같은 건강지향형 음료가 인기 상한가를 치는 등 세대교체 현상이 나타난 것. 가격 경쟁력 추락도 콜라가 자판기에서 밀려나는 이유 중에 하나다. 현재 자판기의 경우 일반음료는 500~700원 하는 반면 250ml 캔콜라는 이보다 25% 비싼 700~800원을 쥐야 마실 수 있다.

콜라가 청소년 건강을 해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음료로 분류된 것도 자판기에서 강제 퇴출되는 또 다른 이유다. 요즘 자판기엔 콜라 대신 이온음료와 웰빙차 등 웰빙형 제품이 입지하고 있다. 음료업계 한 관계자는 "1980년대엔 콜라, 사이다 등이 주목받았지만 2000년대엔 이온음료나 식이섬유음료, 미과즙음료, 혼합차음료 등 웰빙형 음료가 인기"라며 "음료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자판기 속 음료도 세대교체 현상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초대형 자동판매기 바이크디스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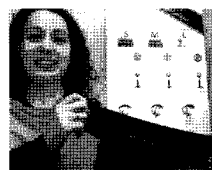
렌트카 형식 손쉬운 자전거 대여시스템

네덜란드에는 바이크디스펜서(Bikedispenser)라는 세계 최초로 도입된 초대형 자동판매기가 하나 있다. 바로 자전거 자동판매기이다. 사실 자동판매기'라기보다 자전거대여기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몇 시간에서 혹은 반나절 단위로 자전거를 이용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언

제든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여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바이크디스펜서는 현재 네덜란드의 아른헬름과 네미메헌 두 곳에 설치돼 있다. 바이크디스펜서 한 곳에는 50~100대의 자전거가 보관돼 있다. 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트너사인 OV-피에츠에 몇 가지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OV-피에츠에 가입하면 바이크디스펜서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여개의 기차역 주변에서도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자전거에는 전자태크가 붙어 있어 대여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반납해도 된다. T자 모양의 입구에 자전거를 집어넣으면 슬라이드 문이 열리는데, 자전거 바퀴가 끝에 닿을 때까지 깊숙이 자전거를 밀어 넣는다. 그 후 OK 버튼을 누르고 슬라이딩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면 자전거 반납이 완료된다. 바이크디스펜서는 2007년 스파크 디자인&건축상을 수상해 대내외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이크디스펜서의 내부는 17cm 간격으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도난이나 파손 걱정 없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더불어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친환경 대안으로 누구나 이용해 볼 만한 혁신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T팬티 자동판매기] - 눈치보지 말고 사자



여성들을 위한 'T-팬티 자동판매기'가 등장해서 화제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먼저 선보인 '슬립-오-마트'라는

이름의 이 자판기의 특징은 일반 팬티가 아닌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는 T팬티를 판다는 것. 평소 사고는 싫었지만 주위의 눈치 때문에 망설였던 여성들은 물론이요,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매우 유용할 전망이다. S, M, L 사이즈별로 구매할 수 있으며, 현재 술집의 여성화장실에만 비치되어 있다고 한다. 팬티 가격은 개당 6유로(약 8천원)다.